

## 순수성의 완전하고 완성된 단계.

밥다다는 모든 자녀들의 두 가지 특별한 면을 보고 있었다. 그는 각 영혼이 어느 정도로 그의 요가와 능력에 따라 정직하고 가장 거룩해졌는가를 보고 있었다. 모든 노력이 영혼들은 정직하고 참된 마음을 갖고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직스러워지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움직여나가고 있다. 그러나 각자가 정직해지는데 있어서 등수대로다.

1) 너희들은 정직한 정도에 따라 그만큼 가장 거룩하다. 가장 거룩해지는데 있어서 주된 측면은 아버지에게 정직해지는 것이다. 단순히 순결생활을 택하는 것만으로는 순수성의 가장 높은 단계가 아니다. 순수성은 참다움(reality), 즉 정직성을 의미한다. 그런 정직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마음의 위로자인 아버지의 가슴의 옥좌에 앉히지며, 가슴의 옥좌에 앉히지는 자녀들은 왕국의 옥좌를 받는다.

2) 정직하고 믿음직스러운 영혼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어떤 보물도 아버지의 지시를 받지 않고서는 어떤 과업에도 사용하지 않는 자이다. 만일 너희가 너희 자신의 마음의 지시나 남들의 지시에 따라, 또는 나쁜 벗의 영향을 받아 시간, 말, 행동, 호흡 또는 생각을 낭비하거나, 너희의 본래의 자아에 관해 생각하지 않고 남들에 관해 생각하거나, 자아존중을 유지하는 대신 교만해진다면, 만일 너희가 슈리마트를 따르지 않고 너희 자신의 마음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 나간다면, 그럴 때는 너희가 정직하다거나 믿음직하다고 일컬어지지 않을 것이다. 밥다다는 세계에 유익을 주는 봉사를 위해 이 모든 보물들을 주었다.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너희에게 그것들을 쓰도록 한 과업이 아닌 다른 과업에 그것들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너희에게 맡겨진 보물들을 돌보는데 정직하지 못한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성의 가장 높은 단계는 정직함이다. 너희들 각자가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나는 어느 정도로 정직한가?

3) 정직한 영혼의 셋째 자격요건은 모든 영혼에 대해 끊임없이 좋은 염원과 고귀한 느낌을 갖는 것이다.

4) 정직하다는 것은 끊임없이 도구가 되고 생각과 말과 행동에 겸손의 느낌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5) 정직하다는 것은 발걸음마다 강력한 단계를 경험하고 모든 생각에 아버지의 동반뿐 아니라 협조의 손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6) 정직하다는 것은 발걸음마다 상승단계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7) 아버지가 있는 그대로 그가 무엇인가를 자녀들에게 드러내듯이, 너희 자녀들에게 정직하다는 것의 의미는 너희들도 너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너희가 무엇인가를 드러내야 하는 것이다. ‘아버지는 어차피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너희 자신을 아버지에게 드러내는 것이 상승단계로 들어오는 가장 높고도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지각에 있는 각종의 짐을 끝내는 쉬운 방법이다. 너희 자신을 명확하게 만든다는 것은 너희의 노력의 길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너희들은 자신의 명료성을 통해 너희 자신을 고귀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대신 무얼 하느냐? 너희들은 바바에게 몇 가지는 말하고 다른 것들은 감춘다. 너희가 바바에게 말하는 것들은 뭔가 구원(시설)을 얻으려는 이기적인 동기를 바탕으로 한다. 너희 자신의 마음의 지시나 남들의 지시에 따라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의 사정을 아주 영리하게 포장해서 아버지나 도구 영혼들에게 내놓는다. 만일 너희가 아버지가 순진한 주님이요 또한 도구 영혼들도 순진하다는 것을 고려해서 너희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너희의 사정을 내놓는다면 그 결과가 무엇이겠느냐? 밥다다와 도구 영혼들은 너희들을 기쁘게 하려고 잠시 동안 너희들에게 “하 지”의 교훈을 사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혼들이 어느 정도로 관용하는 힘과 직면하는 힘을 갖고 있는가를 알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불쾌해하지 않고 그 영혼들에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줄 것이다. 그들은 그 영혼들을 행복하게 만들겠지만,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과 마음에서 우러나 그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다. 너희들은 영리해지려 하지만 그

렇게 하는 대신 매우 순진해진다. 어떻게? 너희들은 그저 조금만으로 행복해진다. 너희들은 패배를 승리로 여긴다. 그것은 여러 생을 위한 패배이지만, 너희들은 일시적인 성취에 대해 행복해지고, 너희 자신을 영리하고, 지각 있고, 승리했다고 여긴다. 아버지는 그런 영혼들에 대해 자비를 느끼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영리함의 가리개 뒤에 숨어있음으로 인해 자기 스스로 영구적인 손실을 경험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밥다다가 뭐라 말하겠느냐? 그들은 고귀한 노력을 할 행운이 없다고 말할 것이다.

8) 정직하다는 것은 너희의 토대가 어떤 상황에 바탕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너희들의 토대는 지식의 모든 측면과 성취를 경험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이 변하자마자 토대가 변하고 믿음이 의심으로 변해서 너희들은 질문을 하기 시작한다: “왜?” 그리고 “어떻게?” . 그것은 성취를 바탕으로 한 경험이라 말할 수 없다. 그런 약한 토대는 어떤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도 격동을 일으킬 것이다. 요즈음 너희들이 어떤 흥미롭고도 재미있는 면을 밥다다 앞에 내놓느냐? 너희들은 1977년까지 순수하게 지내야 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순수하게 지내기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너희들은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넘기고, 너희 자신의 잘못은 없는 것으로 만들고, 신을 탓한다. 그러나 순수성은 브라민들의 본래의 산스카라다. 그것은 제한적인 산스카라가 아니다. 제한적인 순수성, 즉 한 생의 순수성은 제한적인 버림이다. 무한하게 버린 자들은 여러 생 동안 불순함을 버린다. 밥다다는 결코 순수성에 대해 기한을 두지 않았다. 너희가 쓰는 슬로건은 ‘아버지에게서 끊임없는 순수성, 평화, 행복의 유산을 받으라’ 이다. 시한을 가진 순수성을 너희들은 어느 단계의 순수성이라 부를겠느냐? 그것은 너희들의 토대가 너희 자신의 경험이나 성취를 바탕으로 하지 않음을 증명한다. 따라서 이것은 정직한 자녀의 자격요건이 아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끊임없이 가장 거룩함을 의미한다. 정직성이 무엇인지 알겠느냐? 앗차.

진리의 힘을 바탕으로 모든 이를 위한 드높임의 이미지가 되며 끊임없이 정직한 마음을 갖는 자들에게, 삶의 매 발걸음을 성취를 바탕으로 내딛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슈리마트를 따르면서 빠른 속도를 내는 자들에게, 그런 집중적인 노력가들에게, 밥다다의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

### 밥다다와 그룹들의 만남:

1) 너희들은 끊임없이 너희 자신이 승리함을 경험하느냐? 전능한 권위자 마스터가 됨은 승리함을 의미한다. 고귀한 배우들의 기념물은 승리의 염주의 형태에 있다. 그것은 단순한 염주가 아니라 승리의 염주다. 이것이 무엇을 증명하느냐? 오직 고귀한 영혼들만이 승리하는 영혼들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의 염주가 찬양된다. 너희들은 이런 식으로 승리하느냐? 너희들은 때때로 승리의 염주에 웨이느냐 아니면 때로는 염주에서 벗어나느냐? 어떤 상황에서든 패배를 경험하는 이유를 너희들은 아느냐? 패배를 경험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나?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거둬들여 체크하질 않는다. 때때로 너희들은 아버지에게서 받는 모든 방법들을 올바른 때에 사용하질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떤 때는 패배한다. 너희들은 모든 방법들을 갖고 있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만일 그것이 이러했다면, 내가 이렇게 했을 텐데.” 라며 후회의 형태로 그것들을 자각한다. 너희 자신을 체크하는데 약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 자기 자신을 체크하는데 사용할 도구는 자신의 신성한 지각이다. 물론 체크하는 방법은 차트를 쓰는 것이지만 신성한 지각을 가질 때라야 정확한 차트를 기록할 수 있다. 만일 신성한 지각을 갖지 못하면 너희들은 뭔가 잘못된 것을 옳은 것으로 여긴다. 만일 도구가 정확하지 않으면 결과가 맞지 않을 것이다. 신성한 지각으로 너희 자신을 체크함으로써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다. 따라서 신성한 지각을 사용해서 너희 자신을 체크해라. 그러면 너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패배를 경험하는 대신 승리할 것이다.

2) 너희들은 끊임없이 빛의 후광 속에 있는 미묘한 천사로서 너희 자신을 경험하며 걷고 돌아다니느냐? 브라마 바바가 아비약트 천사가 된 후에 사방의 모든 영혼들에게 봉사하는 도구가 되었는데 너희들도 너희 자신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빛의 형태를 띤 영혼으로서, 그리고 빛의 형태를 가진 천사로서 경험하느냐? 너희들은 밥과 다다 둘 모두와 대등해져야 한다, 그렇지 않느냐? 너희들은 둘을 다 사랑한다. 사랑의 증거는 대등해지는 것이다. 너희들은 너희가 사랑하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말할 것이다.

사랑은 산스카라를 조화시킴을 의미하며, 산스카라의 조화를 바탕으로 사랑이 있다. 산스카라가 조화되지 못할 때는 아무리 애를 써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너희들은 두 아버지 모두를 사랑하느냐? 아버지(바바)와 대등해진다는 것은 영혼의 빛의 형태에 안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다다와 대등해진다는 것은 천사가 됨을 의미한다. 너희들은 두 아버지 모두의 사랑에 보답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들은 사랑에 보답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천사로서 움직여나가느냐 아니면 다섯 원소로 만들어진 몸(땅)이 너희들을 끌어당기느냐? 너희가 미묘해질 때, 그 몸(땅)은 너희들을 끌어당기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와 대등해진다는 것은 더블라이트가 됨을 의미한다. 너희들은 두 가지 라이트를 가졌느냐? 하나는 육신의 형태에 있고, 다른 하나는 무체의 형태에 있다. 너희들은 둘 모두에 대등하다, 그렇지 않느냐? 만일 너희가 대등해진다면 너희들은 강력해지고 승리할 것이다. 만일 너희가 대등하지 않다면 때로는 승리하고 때로는 패배하는 기복이 있을 것이다. 흔들림 없게 되는 방법은 대등해지는 것이다. 돌아다니는 동안 끊임없이 너희 자신을 무체의 영혼이라 여기고, 행동을 행할 때에는 너희 자신을 아비약트 천사로 여겨라. 그러면 너희들은 끊임없이 저 위에 있으면서 행복 속에 날아갈 것이다. 천사들은 날아가는 것으로 묘사된다. 천사들은 산 위에 보여진다. 천사란 고귀한 단계를 가진 자를 의미한다. 이 물질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천사들은 계속해서 초연하게 각자의 역할을 지켜보며 전류를 보낸다. 그들은 자비를 위한 도구들이기 때문에 이 전류를 보내야 한다. 초연한 관찰자로서 지켜보며, 계속해서 전류를 보내라. 즉 계속 협조를 주어라. 너희가 자리를 떠났을 때는 결코 전류가 주어질 수 없다. 전류를 준다는 것은 너희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자비의 전류를 보내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오직 너희가 고귀한 단계에 있을 때에만 그것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어떤 것과도 혼합되지 않고 너희의 태도와 시선을 통해 협조의 전류를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너희들은 어떤 종류의 분위기의 열(영향)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만일 너희가 열을 느낀다면, 그것은 너희가 초연한 관찰자의 단계를 갖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너희들은 과업의 동반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아버지의 동반자는 되어야 한다. 너희가 초연한 관찰자가 아니라 동반자가 될 때는 열을 느낀다. 만일 너희가 이런 식으로 책임을 다하는 법을 배운다면 등대로서 세계에 드러날 것이다. 요즈음 어떤 물결이 퍼지고 있느냐? 처음에는 마하라티들이 동료들을 불순한 데서 순수하게 만드는데 마음 속으로 많은 힘을 가졌었다. 너희들은 너희가 가졌던 본래의 힘을 기억하느냐? 너희들은 참으로 많은 깊은 사랑과 열의를 가졌었다. 너희들은 모든 이를 자유롭게 하고 각자에게 힘을 채워주려는 깊은 관심을 가졌다. 처음에 너희들은 동료들을 해방시키고 보호해야 하는 힘을 가졌었다. 너희들은 지금 그런 같은 물결을 갖고 있느냐? 움직여 나가면서 나약해진 영혼들이든, 아직도 굴레에 묶여 있는 새로운 영혼들이든, 너희들은 아직도 모든 이를 굴레에서 자유롭게 해주려는 강한 느낌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은 드라마라 말하면서 그들을 제쳐놓느냐? 너희의 현재 역할은 무엇이나? 축복의 공여자, 대 기부자, 시혜자의 역할이다. 그것은 드라마다. 그러나 그 드라마 안에 너희의 역할은 무엇이나? 따라서 이 물결이 반드시 퍼져야 한다. 소방대가 불을 끌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불이 나면 어디에서라도 멈출 수가 없다? 그런 물결이 있어야 한다. 남들이 너희의 물결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 만일 너희가 그것이 드라마라고 또는 왕국이 세워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들을 제쳐놓는다면 그들이 어떻게 유익을 얻겠느냐? 너희들은 지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것이 드라마라는 것을 안다. 그런데 드라마 안에서 너희들의 임무가 무엇이나? 마하라티들 간에 어떤 물결이 있어야 하느냐? 너희들은 무엇을 듣더라도 그에 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하고 다른 어떤 종류의 생각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긍정적인 생각은 그들의 지각을 차별하게 식힐 수 있다. 만일 너희가 그들을 제쳐놓는다면 그들에게는 아무 것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샹티들이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그저 빼대다. 샹티들이 어떤 단계여야 하느냐? 여신들의 형상 속에 두 가지 특질들이 보여진다. 그들의 눈은 어머니다운 느낌을 보여주고, 그들의 손은 무기를 들고 있다. 즉, 그들은 모든 악을 파괴하기 위해 어머니 같은 느낌을 갖는다. 즉, 그들은 자비를 느끼며, 악을 파괴하기를 원한다. 악을 파괴한다는 것은 자비심을 가지면서도 사악한 산스카라를 끝낼 계획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랑이 넘치는 것과 법을 지키는 것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 둘이 함께 있어야 한다. 약점의 물결이 파멸 때문에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약점이 오랜 기간 동안 있어오다가 더 이상 감춰져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처음에는 약점들이 은밀하게 내적으로 존재하지만, 지금은 때가 가까워오고 있고, 따라서 너희들은 너희의 약점들을 감출 수가 없다. 왕이 될 자들, 백성이 될 자들, 낮은 지위를 가질 자들, 하인인 자들 등 누구든 지금 모두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마지막의 비전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 비전들은 지금 주어지고 있

다. 너희들이 아무런 약점들도 갖고 있지 않았었고 지금에만 그것들이 생긴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드러낼 기회가 지금 온 것이다. 병이 끝날 때에는 모든 것들이 나오는 것처럼,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모든 이의 각종의 약점들이 모두 드러날 것이다. 지금 너희들은 그저 한 가지 물결만을 보았지만 많은 다른 물결들을 모두 보게 될 것이다. 극단으로 가는 것은 필수적이다. 극단이 있을 때라야 끝이 있을 수 있다. 너희가 내면에 어떤 약점들을 갖고 있더라도 감춰져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것들은 단연코 이러저러한 형태로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모든 이가 유익을 경험해야 한다고 느껴야 한다. 너희들은 축복의 공여자이며, 따라서 너희들의 모든 생각들은 하나하나가 모든 영혼의 유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많은 다른 물결들이 있을 것이다; 한 물결이 끝나면 다른 물결이 나올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모든 이의 지위를 아주 명확하게 만드는 재미를 위한 부수적인 줄거리들이다. 이것은 계속 일어날 것이다. 뭔가 경이로운 장면들이 있어야 한다. 한편에는 새로운 영혼들이 앞서 달려나가는 것이 보일 것이고, 다른 한편에는 지쳐서 정체된 영혼들이 보일 것이다. 셋째 편에는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아직도 남아 있는 약점들도 겉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것은 아무 것도 새로운 것이 없다. 그러나 자비의 눈길과 자비의 느낌이 둘 다 있어야 한다. 앗차.

**축 복:** 아버지, 그리고 축복의 공여자와 맺는 이중의 관계에서 오는 이중의 성취를 가진 끊임없이 강력한 영혼이 되어라.

모든 힘들은 아버지에게서 오는 유산이고, 축복은 축복의 공여자에게서 오는 것이다. 아버지, 그리고 축복의 공여자와 맺는 이 이중의 관계를 통해서 모든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고귀한 성취를 갖는다.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는 너희들을 모든 힘들의 주인인 자녀로 만든다. 이와 함께 그는 축복의 공여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태어나자마자 너희들을 전능한 권위자로 만들고 “모든 힘을 가질지어다” 라는 축복을 준다. 한 분에게서 이런 이중의 권리를 얻음으로써 너희들은 끊임없이 강력해진다.

**슬로건:** 자신의 낡은 성질, 산스카라, 그리고 약점들뿐 아니라 몸으로부터도 초연해지는 것이 몸 없이 되는 것이다.

\*\*\* 음 샐티 O M S H A N T I \*\*\*